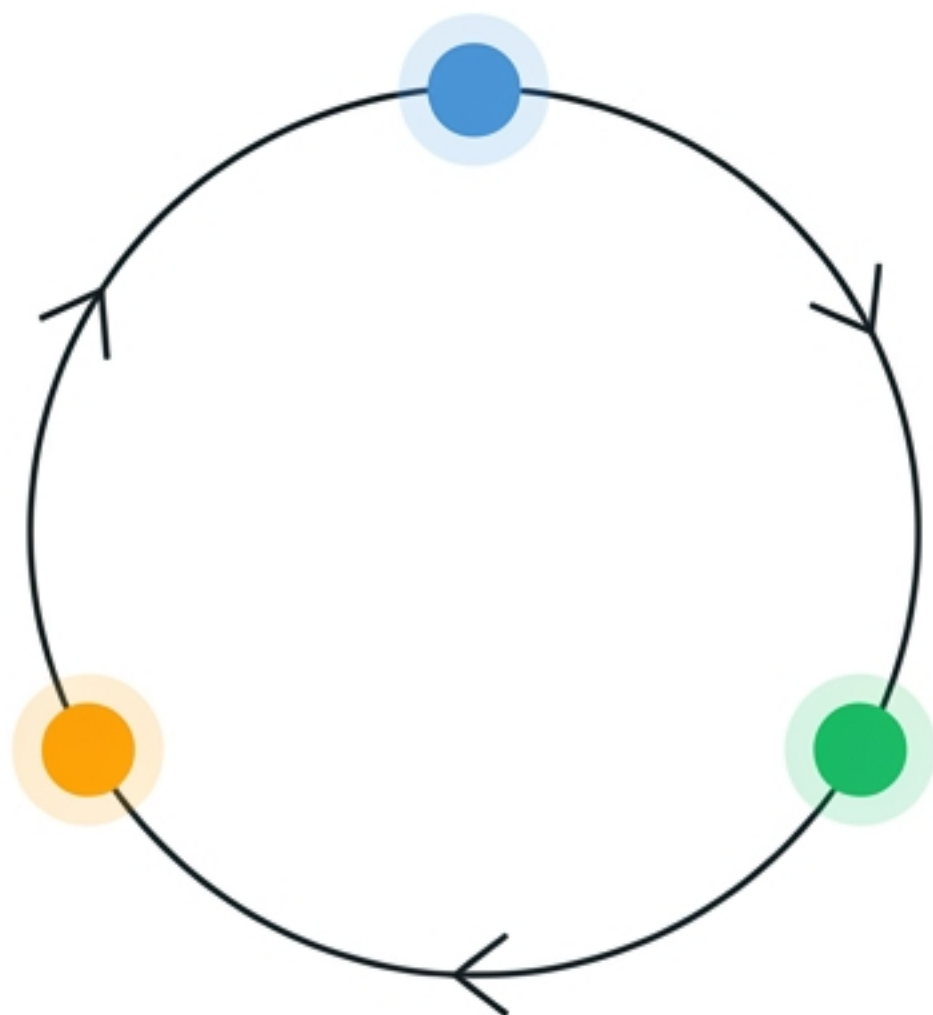


데이터로 자동화하기

기준점을 24시간 지키는 완벽한 루프



스마트팜 입문·초중급 농가를 위한 환경 관리 가이드

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.



기준점을 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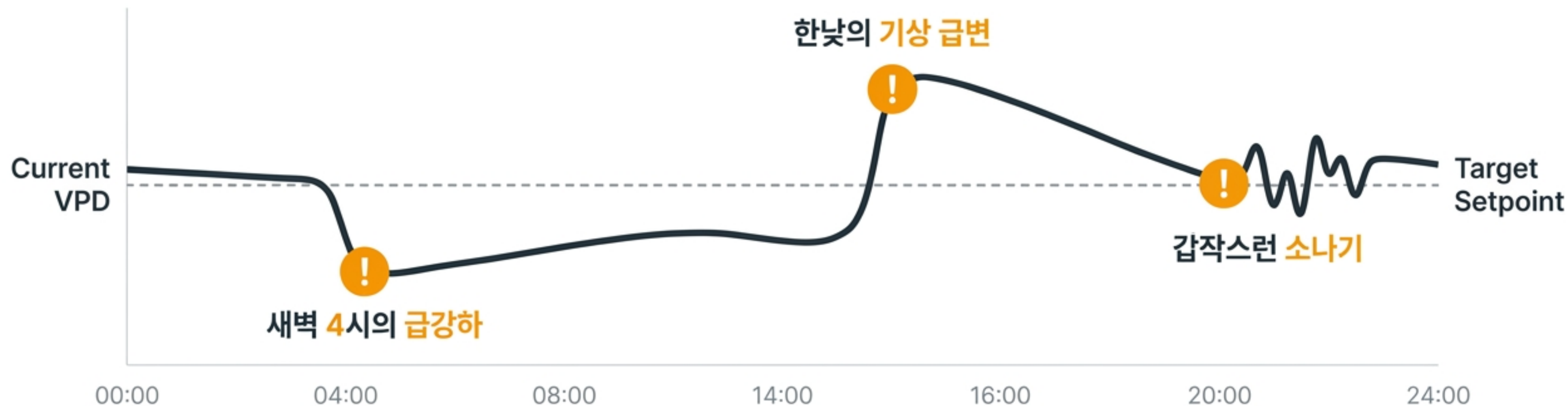
작물에 맞는 최적의
VPD 목표값을 이해함.



24시간 지킨다

석 달 내내, 밤낮없이
기준점의 오차를 방어함.

바로 그 틈에서 작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.



새벽의 온도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
사람이 잠들고 밤을 비운 사이 위기가 발생합니다.

자동화는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.

$$\left[\text{사람이 하던 일} \right] \div \left[\text{3단계} \right] \times \left[\text{무한 반복} \right] = \left[\text{자동화} \right]$$

자동화란 단순히 사람이 정한 목표를 기계가 ‘쉬지 않고 반복’하는 것입니다.
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기준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
24시간 기준점을 지키는 3단계 순환 원리



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이 고리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.

1단계: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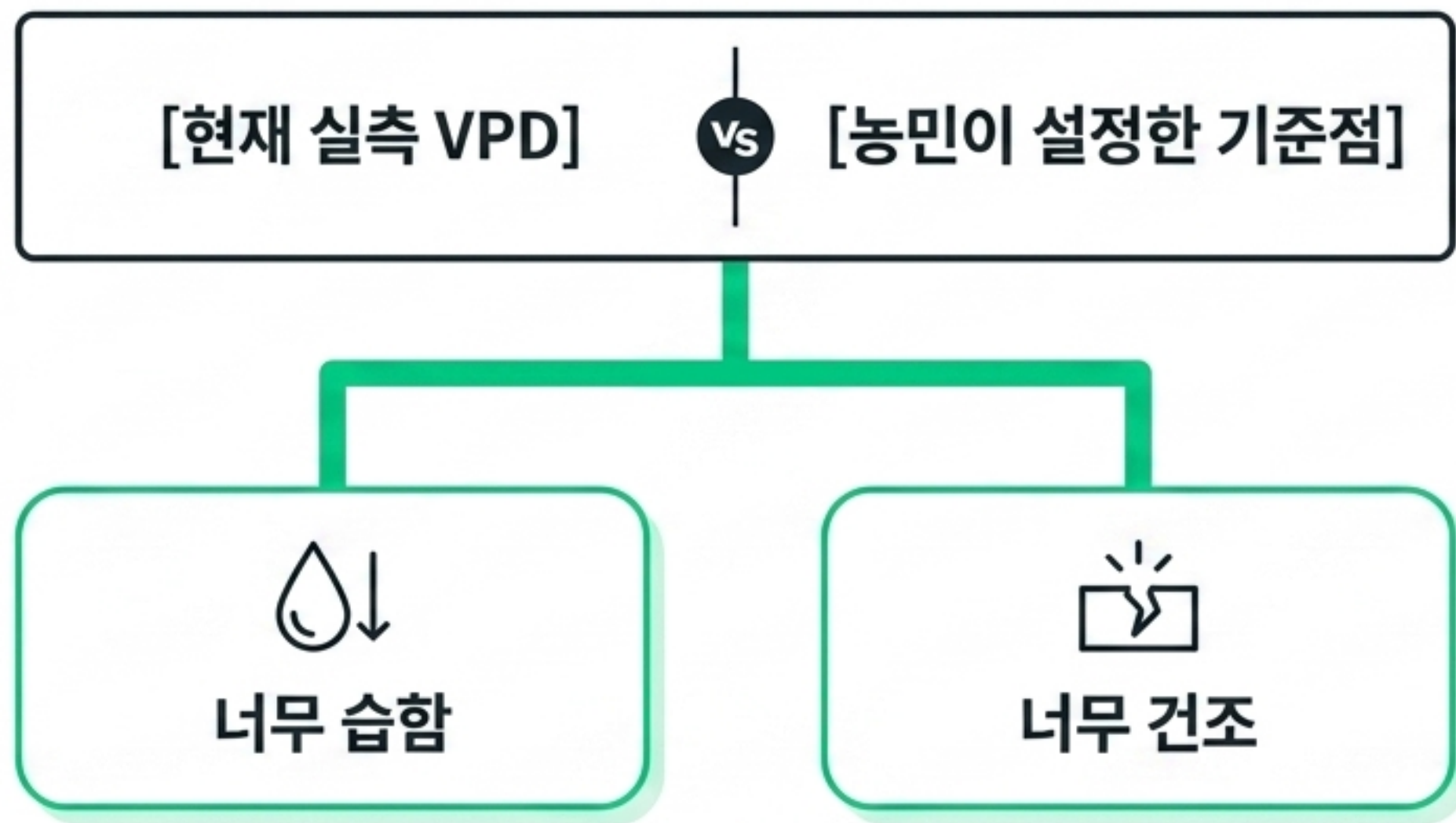
실 새 없이 온실의 상태를 감지합니다.



복합환경 제어를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.

2단계: 판단

현재 상태와 농민의 목표를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.



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를 계산하여 기준점을 벗어났는지 판정합니다.

3단계: 실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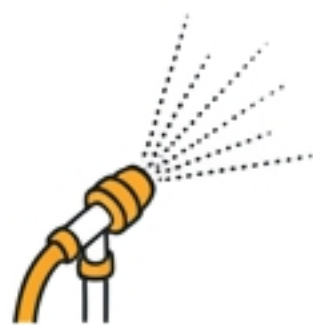
기준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즉각 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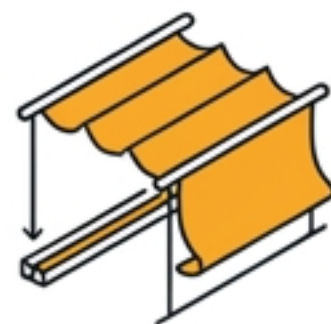
천창/측창 개폐



난방기 가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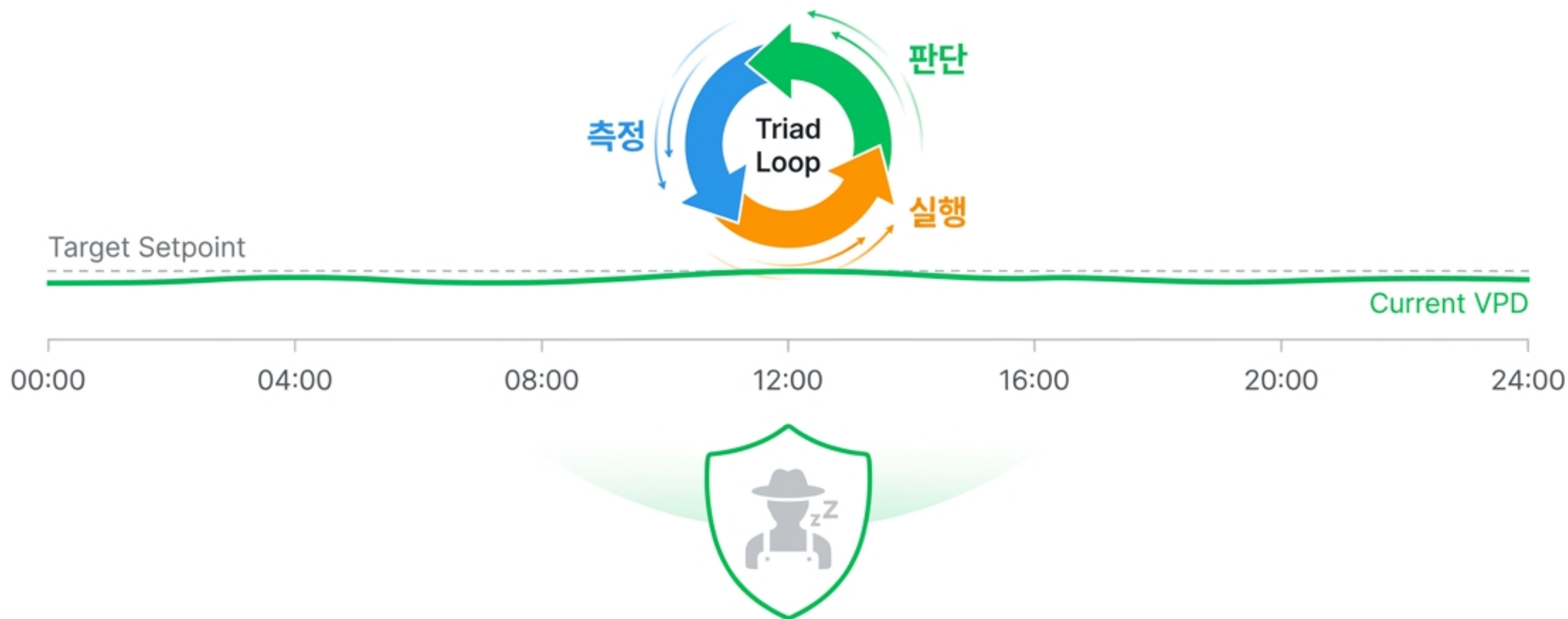
가습기 분무



차광커튼 제어

제어기가 장비들을 알아서 조절하여 온실 환경을 즉시 교정합니다.

수십 초 단위의 반복이 만드는 완벽한 방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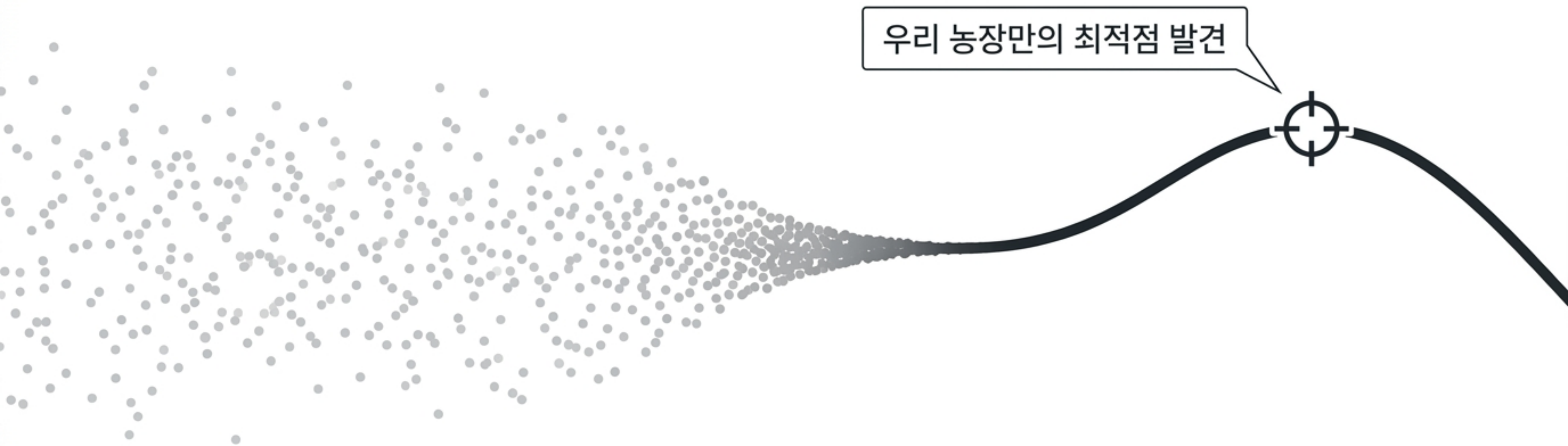
이 과정은 수십 초에서 수 분 단위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.
사람이 자리를 비워도, 위기가 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.

역할 분담: 지휘관과 파수꾼

 지휘관 - 사람	 파수꾼 - 자동화
• 최종 결정권 작물의 생육 단계를 보고 VPD '목표값'을 설정. • 전략 수립 데이터 기록을 분석하여 다음 재배 전략을 기획.	• 유지 및 실행 설정된 목표값을 24시간 내내 오차 없이 지킴. • 감시 및 보고 4시 급강하 등 사람이 대응 불가능한 시간대의 위험을 방어.

최종 판단과 결정권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. 시스템은 그 판단을 뒷받침할 뿐입니다.

데이터가 쌓이면, 우리 농장만의 '최적점'이 보입니다.



과거의 기록을 되짚어 원인을 추적하고, 내 농장, 내 작물 환경에
가장 완벽하게 맞는 기준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.

기준점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여정



이 모든 과정을 거쳐, 비로소 스마트팜 환경 관리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.

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팜패스 시스템



센서로 재고, AI가 판단하고, 팜내비가 실행합니다. 자동화,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필요할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.

데이터가 만드는 멈추지 않는 농장, 팜패스와 함께하세요.

[farmpath.net/learn] 아카데미 자료 더 보기

[재생목록] 환경 관리 시리즈 다시보기

전문가에게 내 농장 최적점 질문하기

팜패스 아카데미